

## 기고

박정록 학평경찰서 경무과장



## 실종예방 해법찾기, 제도활용과 관심으로부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접수 처리 건수는 2014년 37,522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42,992건에 달한다고 한다.

신고 후 미발견 건수는 2014년 15건, 2015년 10건, 2016년 20건, 2017년 32건에서 작년 2018년에는 미발견 건수가 184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실종아동등이란 약취, 유인,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하며 미발견 통계는 최근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으며 지속적인 추적, 발견을 통해 2018년 미발견 건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에도 당해연도 말에는 191건이었으나 1년여간의 경찰의 추적관리를 통해 32건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매년 미발견 건수가 10건이상 되고 있다는 것은 실종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아픔이 아닐 수 없다.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 언급한 것은 신속 발견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실종예방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에 따른다.

실종아동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99.9% 찾았다고 있지만 낚시적

아동 중 장기실종이 많아지고 있

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

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은 장기

실종아동은 2019년 4월말 기준으

로 총 643명에 달한다고 한다.

실종된지 1년 미만은 101명, 1

년~5년미만은 19명, 5년~10년

미만 14명, 10~20년 미만 60명,

20년 이상 실종자는 449명이다.

과거사례로 보면 미아가 고아

로 처리되어 입양된 경우도 적지

않았고 실종된 장애인이 열진이나 축산농가에서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일하게 된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실종예방을 위해 경찰,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기업 등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한 경우 실

종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5분이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평균 56시간이었다.

특히 8세 미만 아동은 인지력이 떨어져 실종시간이 일어나면 부모

를 찾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

다. 18세 미만 아동의 사전등록률은

49%대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

고 있다.

지문사전등록으로 2018년 79명,

2019년 4월까지 27명이 가족의 품

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사전등록제는 적극 알리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실종아동 예방 수칙을 보면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서에서 사전등록을 신청하고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말고 항상 자녀와 함께 다녀야 한다.

그리고 이름표 등 실종아동 예방품목을 활용하고 이름표는 잘 보이는 곳에 두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옷 안쪽 등에 표기하고 평소 자녀의 키, 몸무게, 신체 특징, 생년월일 등을 기억에 둬야 하며 아이의 일과를 숙지하고 친한 친구와 가족의 정보도 미리 알 이두게 하면서도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이름 등을 의우게 하고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실종아동이 의심되면 경찰서나 파출소 11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주변에서 아동 등이 홀로 돌아다니거나 수상한 사람과 함께 있다고 의심될 시에는 바로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종아동들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실종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어 실종자들이 히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

가고 더 이상 실종아동등이 발생

치 않기를 희망해 본다.

## 社說

## 여수공항 활성화 서둘러야

여수와 순천, 광양 등 광양만권 3개 시가 여수공항에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물론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최근 여수 시청에서 열린 '광양만권 3개 시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지역 항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수익창출과 국제선 취항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여수·순천·광양 등 3개 시 행정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여수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보고회에서 여수공항에 저가항공사(LCC) 설립을 위해서는 국내선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보고 국제선 취항 등 결코 만만치 않은 조건들이 즐비해 있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여수공항의 텁승률은 70%

##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http://www.i-honam.com)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mailto: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 우천시 빗길 안전운전, 미리 알아두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서서히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행을 위해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소나기나 폭우를 만나는 경우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빗길운전이다.

빗길운전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 외부 운도차에 따른 김 서립 방지를 위해 차량의 여러 버튼을 조작해야 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아 많은 긴장을 하게 된다.

실제 빗길에는 핸들이나 브레이

이크 기능이 떨어지고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력도 떨어져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또한 타이어와 노면사이 수막현상이 생겨 차량이 미끄러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은 비가 오는 날 주의해야 할 안전운행 수칙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빗길에선 무조건 감속운행을 한다. 빗길은 평상시보다 최대 60%까지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따라서 앞차와의 여유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평소보다 20%이상 감속운행을 한다.

둘째, 낮에도 전조등을 켠다. 전조등은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보행자나 다른 차량들이 내차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조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상태를 체크한다. 젖은 노면을 빠르게 달리면 물 위의 수상스키와 같은 수막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평소보다 10%정도 타이어 공기압을 높여 수막현상을 줄이고, 심하게 미모된 타이어는 미리 교체한다.

넷째, 외이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비오는 날 외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외이퍼 작동 시 이물질이 끼어 빗물이 잘 뒤이지 않거나 줄이 생기고 소리가 난다면 즉시 교체한다.

다섯째,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우산에 가려 시야가 좁아지고 빛소리로 인해 주변의 소리를 잘못 들으므로 주의 한다. 또한 자신이 운전에 곤란함을 느끼듯 상대차량도 비슷한 상황일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여섯째, 가급적 아간운전은 피한다. 빗길 아간운전은 능숙한 운전자도 힘든 운전이다. 초보 운전자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비가 오는 날 아간운전은 가급적 피하되,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할 경우라면 평소보다 현저히 속도를 줄이고 주위의 교통흐름을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한다.

임영진 / 화순능주119센터 소방위

##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家	집	加	가
給	줄	급	급
千	일천	천	천
兵	병사	병	병

▷뜻: 제후(諸侯) 나라에 일천 군사(軍士)를 주어 그의 집을 호위(護衛)시킴.

## 대표 이사·회장 김평호

##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 편집국장 강서원

등록번호 광주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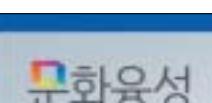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mailto: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